

우리 축산 내일의 기반,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

10월 13~14일 경기 소재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종축개량협회 공동으로 2015 한국홀스타인품평회가 개최됐다. 우수 젖소 유전자원 발굴과 개량사업의 성과를 확인·평가하고 낙농분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1989년부터 실시된 관련 분야에서는 역사 깊고 규모 있는 행사다.

우연히 접한 행사소식을 살피다 문득 '한국종축개량협회'라는 축산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봤을 명칭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을 기관이다.

익숙한 듯 생소한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이재용 회장을 만나 협회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최근 축산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Q 먼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한국종축개량협회는 1969년도 설립된 가축개량전문 축산단체로서 한우·유우·종돈의 혈통등록·선형심사·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축의 수출업 추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가축개량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혈통 자료를 분석·가공해 가축개체의 근친도 분석·유전능력평가, 후대검정 등에 대한 자료를 축산농가에게 제공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Q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한국홀스타인등록협회 설립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1월로 47주년을 맞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백년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본다면요?

A 한우 개량은 개체의 유전자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종축개량협회는 한우 등록의 필요성을 홍보해 우선 농가가 등록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한편, 혈통 등록된 자료는 전산화 하고 분석·가공해 농가가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형심사를 통한 암소 번식 또는 비육도태 기준 제공으로 향후 무계획적인 사육두수 증가를 예방하고 있으며 미정산우 비육 장려를 통한 브랜드화 유도, 우량 암소 선발 및 수정란 생산 유도로 우량송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능력평가대회를 통해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한우고기 소비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최근 우리원은 마블링 관련 이슈로 큰 고심을 했었습니다. 소비성향 변화에 따라 제도나 생산 농가에 기대하는 것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협회에서 보는 마블링 이슈와 협회의 향후 대응방안은요?

A 일부 소비자가 한우고기에 지방이 많아 건강에 좋지 않다고 주장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지방등급인 1등급 이하 출현율이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등급 쇠고기 중에서도 마블링이 높은 등심의 생산량은 소한마리를 가공할 때 37kg 정도지요. 이는 연간으로 따져도 수입육을

포함한 연간 총 소고기 소비량 58만 톤의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기의 구매시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고 국내산 저지방 소고기와 수입육 등 구매 선택폭이 대단히 넓으므로 원하는 소비자는 저지방육을 구매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개방화시대에 한우고기는 가격경쟁력이 없으므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수입쇠고기와의 품질 차별화에 국제경쟁력 확보방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정책(등급판정제도)의 기본 골격은 물론, 현행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도 사육기간 단축과, 조직감·성숙도에 따른 맛 좋은 상위등급의 한우고기를 생산하도록 체계적으로 암소를 선발해 한우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축 협회의 역사 속에는 저희 축산물품질평가원도 있습니다. 게다가 회장님께서도 전 축평원장이셨지요. 축평원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회장님께서 보시는 축평원의 오늘과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축산물등급제는 명실공히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08년부터 한우고기의 둔갑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쇠고기이력제 사업을, 2015년부터는 돼지고기이력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의 도·소매 유통까지 관장하게 되어 쇠고기 유통 개선업무 또한 총괄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축평원은 국내 축산물의 도축·가공·판매 및 브랜드 사업까지 관장하고 있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자면 도체상태의 등급판정에서 나아가 부분육의 등급분류와 맛 등급을 개발·시행함으로써 현행 도체등급제를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축 비단 정부3.0 때문이 아니라라도 국내 축산의 상생을 위해 축산계 전반이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협력하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협회에서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끝으로 소개해주시고.

이 개방화시대에 국내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종자개량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모든 농축산물이 종자전쟁시대에 도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고유 유전자인 한우개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젖소와 종돈도 한국 환경에 적응력이 강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한국형 종자를 개량해야 합니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개량 전문기관으로서 각 축종별 축산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한우·젖소·종돈의 개체별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계대별로 혈통 관리하겠습니다. 당대의 선형심사와 후대검정을 통해 우수 개체를 선발하고, 열성개체는 도태토록 유도하며 축산농가에서 개량을 통해 소득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종별 전 두수에 대한 개체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전산화해, 농가에서 계획교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기반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선진축산국과 개량결과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여 한우 및 한국형 젖소·종돈에 대한 우수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국내산 생축 및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원정호*